

15일 Market Index			
↓ 코스피	2496.81	↓ 코스닥	711.61
	(-0.59)		(-6.43)
↑ 금리 (미국 9년)	2.675	↓ 환율 (원·달러)	1461.55
	(+0.029)		(-1.65)



尹, '비상계엄 사태' 43일 만에 '내란수괴' 혐의 체포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
공수처, 6시간만에 영장집행 완료
11시부터 영상녹화조사실서 조사
尹, 체포직전 대국민 메시지 통해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란 수괴 혐의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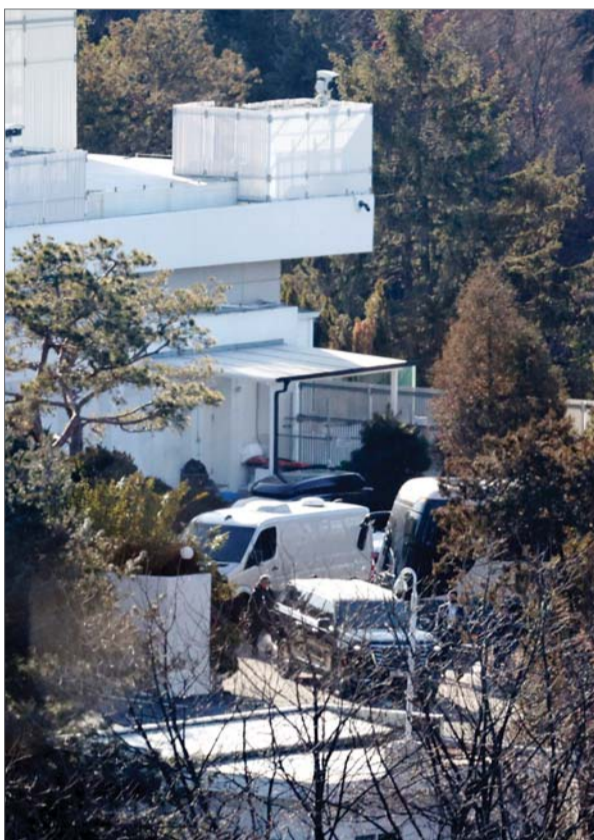
윤 대통령은 공수처로 떠나기 직전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관련기사 2·3면〉

이날 경찰과 공수처는 오전 4시10분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해 오전 10시33분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경호처에 막혀 무산된 이후 12일만이며, 지난해 12월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15일만이다.

이날 오전 5시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김기현·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관저 앞을 찾았다. 이들은 '불법 체포'라며 강성 보수 시위대와 함께 경찰·공수처 체포팀과 대치했다. 하지만 체포팀은 오전 7시34분쯤 1차 저지선을 뚫었고, 불과 26분만에 대통령 공관으로 이어지는 철문(3차 저지선)에 도착했다.

이날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무집행 방해자로 체포된 경호처 직원·국회의



(왼쪽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의해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15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를 나서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의해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원·시위대는 없었다. 관저를 막는 경호처 직원이 없어, 진입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고 공수처는 전했다.

관저에 도착한 수사팀은 윤 대통령과 출석 과정 등에 대해 협의했다. 윤 대통령은 측은 자진 출석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수처는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체포 영장 집행이 목표"라고 선을 그었다.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됐다. 영장 집행 개시 6

시간23분 만이다. 오전 10시52분 과천 공수처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오전 11시부터 청사내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체포되기 직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안타깝게도 이 나라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돼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불미스러운 유행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공수처로 향하기 직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을 남기고 체포에 응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조사한 후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신문을 위

해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를 '불법 수사'로 규정한 만큼,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무장한 군인을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한 총책임자로 지목된 것이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취업자 수 5.2만명 감소... 최상목 "쏠 부처 일자리 창출 힘 보태야"

(전년 동월 대비)

국정현안·경제·산업장관회의
고용시장 위축 우려, 정부 적극지원
전기차·이차전지 인센티브 확대
내달부터 바이오 분야 밀착 지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내 고용시장 위축을 거론하고 모든 정부부처가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탤 것을 당부했다. 또 주요 산업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전기차 시장 수요가 더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상목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5만2000명 감소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4·6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건설업 등 내수회복 지원, 주력 업종 경쟁심화, 생산연령인구 감소폭 확대 등으로 향후 고용 여건이 녹록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말 직 접일자리사업 종료 등 일시적 요인과 함께 경제주체들의 심리 악화로 복합 작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全) 부처가 일자리 전담 부

처라는 각오로, 국민 한 분 한 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약 부문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 대행은 고용 상황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상반기 중 일자리 등 민생·경기사업 70% 이상 신속 집행, 18조 원 수준의 경

기보강 등을 통해 내수 회복 및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국 정권 교체에 따른 자동차산업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전기차 수요 둔화로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우리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비상한 상황을 정면 돌파해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의 첫 차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구매 인센티브를 확대해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차전지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을 전년 대비 2조 원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미국의 보편관세 도입,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인센티브 축소에 철

저한 대비 ▲아세안 국가와의 FTA 협상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등의 정부 계획도 제시했다.

정부가 바이오 분야에 대한 지원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최 대행은 "전문 보육기관이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을 선정하고 창업부터 수익 창출까지 밀착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2월부터 신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또 "후보물질 발굴부터 신약개발까지 집중 지원하기 위한 4000억 원 규모의 바이오펀드를 올해 중 신규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오는 설 연휴 안전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연휴 기간 즉시 작동하는 재난대응 체계를 갖추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주 중 현장을 방문해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직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메트로 한줄뉴스



- ▲ 법원,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 두달간 사건 배당 중지 /사진 뉴시스
- ▲ 한미일 공중훈련 실시... 미 B-1B 전략폭격기 전개

- ▲ 이재명, 윤 체포에 "안타까운 일... 민생 집중할 때"
- ▲ 우 의장, 윤 체포에 "혼란 일단락... 특검법 신속하게 처리할 것"

- ▲ "과천으로 가자"...尹 대통령 체포에 보수층 고성·오열
- ▲ 한 총리 "12·3 비상계엄, 잘못... 이런 상황 막지 못해 국민께 죄송"